

제38회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 9월 20일~21일 개최

무료 적벽 셔틀·적벽 걷기·GEO 환경음악회·적벽 웰니스 타임 등 자연·문화·치유가 어우러진 축제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의 대표 가을 문화축제인 제38회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이 오는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이틀간 화순적벽과 이서커뮤니티센터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주제인 '무릉부릉은 적벽 서를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무려 3,000여 명의 내·외빈과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 속에서 문화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무료 적벽 셔틀'이다. 9월 20-21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적벽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예약제 방식과 달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벽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큰 호응이 기대된다. 또한 축제 주제가 '환경'인 만큼, 관람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광주 지하철 소태역 1번 출구에서 축제 행사장까지 연결되는 버스를 마련했다. 해당 버스는 행사 동안 하루 4회 운행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일(일) 오전 9시부터는 평소 출입이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 걸어서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벽'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송석정, 대나무숲, 옛 우물, 마을 돌담길 등 적벽의 비경을 문화해설사 및 안전요원과 함께 탐방할 수 있으며, 1년에 단 하루만 허락되는 특별한 기회다. 사전 모집에도 500명 이내 참가자를 받으며, 지난해에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GEO 환

경음악회'는 화순 지오학교와 함께 공동 기획하여 진행되는 협업 프로그램으로 이서커뮤니티센터와 망향정에서 진행된다. 화순 지오학교는 지역의 지질·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해 음악과 환경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관소리, 현악 앙상블, 색소폰 솔로·앙상블, 플루트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적벽 일대 곳곳에서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감성적이고도 특별한 음악 경험을 선사한다. 20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1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오까지 공연이 이어진다.

'적벽 웰니스 타임'은 21일 망미정에서 오전 11시 힐링 요가, 오후 2시 태극권 시범 및 명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강사와 무등산승계선원 민웅기 원장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사전 신청자와 현장 접수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건강과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나주시, '2025 청년의 날 & JOB 페스티벌' 개최

정책 참여와 미래 일자리, 청년이 함께 만든 축제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20일 '2025 청년의 날 & JOB 페스티벌'을 연계 개최하며 청년 정책 참여 확대와 미래 일자리 발굴을 동시에 추진한다.

5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나주의 내일, 청년을 잡(JOB)아라!'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넓히고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의견을 기획 단계부터 적극 반영해 정책과 축제가 어우러진 '청년 중심 행사'로 마련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 최대 관심 분야인 'JOB 페스티벌'과 연계 추진해 정책 참여와 취업 기회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한다.

특히 JOB 페스티벌에서는 현장 기업 면접, 공공기관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는 플라마켓도 열린다.

또한 청년정책 홍보존, 청년정책 골든벨을 통해 나주시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더불어 초청 공연과 청년 버스킹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해 청년뿐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4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OSCO)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전국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추진한 모금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경쟁하는 자리로,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곡성군은 발표에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을 소개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은 인구 2만 6천여 명의 고위험 소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전국 최초 소아청소년

곡성군,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사업... 전국 최초 소아과 진료 성과 인정

년과 출장진료(시즌1)를 개설했다. 이후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의 60% 이상이 상시진료를 원한다는 응답에 따라 곡성군 보건의료원 내 '상시진료(시즌2)'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 구인, 법령 유권해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개발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으나, 각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환류

형 기금사업을 시제로 추진하여 주민 100%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주민 90% 이상이 소아과 개설이 기부로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9천여 명 규모의 '곡성사랑 응원단' 활동 ▲전국 유일의 기부형 답례품 '곡성사랑 플렉스퀸' 개발 ▲수혜자 자필 편지 전달 등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통해 기부자의 참여와 재기부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곡성군의 기부 문화 확산

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실적 제고에 기여하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곡성군민과 기부자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상시진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군민 수요가 높은 분야로 지정기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부-관광-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순천시, 옷장국밥거리 상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 만족도 높이고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박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4일 옷장국밥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옷장국밥거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남도미식콘텐츠진흥원 이은상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2025년 외식업 성공 트렌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차별화된 국밥의 경쟁력 강화 △고객과의 공감소통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오는 28일 열리는 '옷장국밥축제'와 추후 연휴 기간 순천

을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보다 특별하고 맛있는 국밥과 수육을 제공하고, 옷장국밥거리를 다시 찾고 싶은 음식거리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교육 외에도 시는 옷장국밥거리 내 23개 업소에 유니폼과 앞치마를 지원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메뉴판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옷장국밥거리를 전국을 대표하는 국밥거리로 육성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도 반드시 들러 보고 싶은 음식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담양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위한 '레드서클 캠페인'

"자기 혈관 숫자 알고 심뇌혈관질환 미리 예방·관리하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자기 혈관 숫자 알고 레드서클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해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Red Circle)'을 지키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혈관을 위한 정상 수치는 혈압 120/80mmHg 미만, 공복혈당 100mg/dL 미만,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이다. 이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첫걸음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최근에는 20대에서도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중증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20~40대부터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예방 캠페인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홍보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뚜렷한 증상이 없어 자각하기 어렵다"며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기 혈관 숫자를 점검하고 조기 관리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패밀리 프리포즈 공모전

가족 사랑을 담은 특별한 사연, 드론으로 밤하늘을 수놓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녹동항 드론쇼와 연계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선사하고자 「2025 고흥 녹동항 드론쇼 패밀리 프리포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배우자·자녀에 대한 사랑과 격려 등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형식에 제한 없이 누구나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 또는 고흥군청 우주항공추진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9월 26일까지이며, 10월 초 2개 사연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연은 10월 중 녹동항 밤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한 빛을 내는 드론을 통해 감

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연출할 예정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드론쇼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중심도시 고흥군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녹동항 일원(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고흥군청 앞 고흥군민광장)에서 700대 이상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늠하다.
평범한 것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평범한 것은
좋은 거라면
우연치 않게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